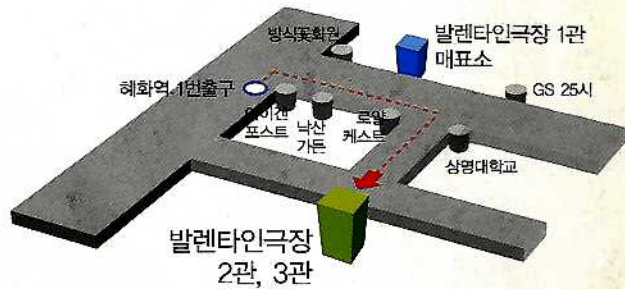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Mdl.32

장애인 성(性)을 이야기하는 국내 최초의 장편 다큐멘터리

핑크 팰리스

정기 무료상영회!
대학로 발렌타인극장 2관



2005. 5. 23(월)~7. 31(일)
대학로 발렌타인극장 2관(Tel.02-3674-5555)
5월 상영 : 매주 월요일(23일, 30일) 오후 7시, 8시 30분
6, 7월 상영 :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7시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언제다시
태어날지 모르는데,
숫총각으로 죽으면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www.pinkpalace.co.kr

STAFF 감독·서동일 | 프로듀서·강관호 | 기획·정지연 | 조감독·강희철 | 구성·서동일 강희철 홍미경 한석준 김지수 | 촬영·서동일
편집·서동일 | 음악·이소영 | 노래·이창익 | 객원스텝·오고니 이해원 권순철 김태성 김상훈 김지수 심성우
후원 | 에이블 뉴스, 팍시에이블넷,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인영화제사무국, 영상미디어센터
문의 | 프로듀서 강관호(016-816-4524) 감독 서동일(010-2383-0077) E-mail : pinkpalace@paran.com

2005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상영
제1회 안양변방영화축제 상영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영 (2005. 5. 15)

www.pinkpalace.co.kr

인권정보자료실
Mdl.32



내 인생이

그림이라면

내 못생긴 육신이
그림이라면
지우개로 말끔히
지우고 싶네

나의 못난 사랑이
그림이라면
지우개로 알뜰히
지우고 싶네

내 잘못된 인생이
그림이라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싶네

아~
이 세상이
그림이라면
그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그렇게
지우개로
하얗게 지우고
살기좋은 세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기에 -

핑크팰리스의 주인공인 **중증 뇌성 마비 장애인 최동수 씨**.
그가 자신의 성(性)과 사랑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영화에 털어놓았다.

시놉시스

오랜세월 무성의 존재로 여겨져 온 장애인들이 각자 자신의 성(性)을 이야기 한다. 중도에 교통사고 등으로 척수를 다쳐 전신 혹은 하반신이 마비된 척수장애인, 언어장애와 경직이 심한 뇌성마비 장애인, 그리고 시각, 청각, 소아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성에 대한 욕구와 경험, 다양한 생각들을 털어놓는다.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언제 다시 태어날지 모르는데, 슛총각으로 죽으면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라고 부르짖는 48세의 중증뇌성마비 장애인 최동수 아저씨! 장애가 심해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의 평생 소원은 ‘섹스 한 번 해보는 것’ 몇 년 전 청량리 성매매업소를 찾아 한 번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 성매매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그는 두 번째 시도를 결심한다. 우린 그의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바라 봐야 할 것인가?

작품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의 실현은 그 욕구를 인정할 때만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인정받지 못했던, 그래서 오랜 세월 무관심속에 무시되어 온 장애인의 성적 욕구를 가감 없이 드러냄으로써 핑크팰리스는 그들과 내가 가진 욕구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오랜 세월 무성의 존재로 여겨져 온 장애인들이
각자 자신의 성(性)을 이야기한다.

작품해설

호주 멜본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한 성매매업소가 있다. ‘핑크팰리스’라는 이름의 이 업소는 장애인 손님들을 맞이 위해 현관문을 넓히고 경사로, 좌식 샤워기 등 여타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이는 국가가 시행하는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의 성매매업소명에서 제목을 따 온 핑크팰리스에는 장애인들이 그간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 욕구들이 솔직하게 담겨져 있다. 핑크팰리스는 장애인 정을 이야기하는 국내 최초의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감독소개



서동일, 1972년생.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서동일씨는 우연히 장애인 월간지 ‘함께걸음’에 게재되었던 “장애인 성” 특집 기사를 보고 이 작업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에게 핑크팰리스는 첫 장편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작품약력

2003. 12	작품기획 및 스텝 구성
2004. 5	제작발표회
2004. 9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인영화제 사전 제작지원작 선정
2005. 1	작품제작 완료
2005. 3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 상영
2005. 5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상영, 제1회 인양변방영화축제 상영
2005. 5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영
2005. 5. 23~7. 31	대학로 소극장 정기 무료상영



최동수

한 번도 못해봤어



최동수 어머니



유용상

애인도 없는데 무슨 성관계를 가져봐요



김경일

계속 고셨죠 계속 뽀뽀하자 이



이양신(33)
최수승장 정선마미

말 그래도 한 여자로 옛날과 똑같은 언저로 생각해 주고



안중민(43) 백송림(38)/부부

이 나이에 러브호텔가서 뭐하냐



임제원(28) 임지연(36)/최수승장 부부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서 지금 왔거든요 천안에 천안의료원에 있어요 저희가



최수승

다주 못만나니까.. 헤어졌어요



김보은

그리고 제일 짧은 건 15초 정도.. 20초나 15초 정도



조명숙(30)

넌가 통가만 뭐 이리..

Pink Palace

Cast

www.pinkpalace.co.kr



이길용(43) 김형미(37)
정각장에 부부

부부 관계할 때..



정각장(41)
장인

카틴오

아무래도 청각적인 부분이 많겠조



오정철(34)

타코에서도 가능한데 그건 가능하디 (타코에서 해방이) 타코에서 해방대



최영석(33)

저는 아주 어렸을때부터요



김두형(30)
시각장애

좀 많고 상방하고 약간 고음이면서 부드러운 듯한 느낌을 있죠



이런 식 과정을 좀해보셨나요?



홍미경(40) 정승철(34)/최수장이 커피
저는 다친지 11년째 됐어요



강중기(38) 최미숙(32)/최수장이 부
강중기입니다. 전 다친지 10년 됐고요



김진옥(48)
결혼 9년

전어 그런 성격인 어떤 욕구나
욕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구나..



장자현실(41)
만화가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가 갖고 있는



도부터 성재학교육을 시작했구요
상담은 98년도부터 저의카에서

(몸통)세림노(영주)주 자호양

이런 식 과정(코릴제출원)



오성환(37)

세상이 그러니까



강광호

핑크팰리스/프로듀서



8 (25)

8집에만 20년? 네



박주영

문미영(27)

전철 타면 울 수 있거든요, 약요
(이게 바로 자업자득)



www.pinkpalace.co.kr

Pink Palace

Cast



영미영

전 이름이 정은혜예요



구혜정
최수순상

황정마비

부부생활에 성이 없으면 어떨 거. 같아요?



홍승상
정신마비

영미영

말없는 호떡이라는 유스캐소리인 것

허광훈



남자구실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러 소리 들어요



김지수(33)

제가 정말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결혼했을 때



윤석경(37)
화상장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때
집에 화재가 나서 사고를 당했는데..

Pink Palace Staff

감독_ 서동일 | 프로듀서_ 강관호 | 기획_ 정지연 | 조감독_ 강희철 | 구성_ 서동일, 강희철, 홍미경, 한석준, 김지수
 촬영_ 서동일 | 편집_ 서동일 | 음악_ 이소영 | 노래_ 이창익 | 객원스텝_ 오고니, 이해원, 권순철, 김태성, 김상훈, 심성우



서동일
핑크팰리스/감독



강관호
핑크팰리스/프로듀서



오고니
핑크팰리스/객원스텝



음악 이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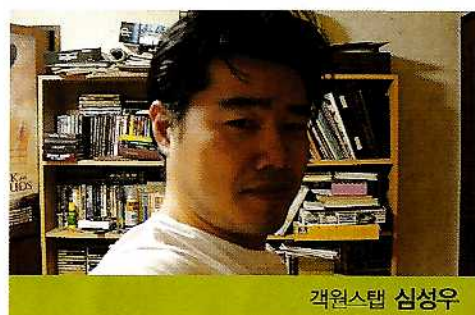
정지연
핑크팰리스/기획



강희철
핑크팰리스/조감독



권순철
핑크팰리스/객원스텝



객원스텝 심성우



홍미경
핑크팰리스/구성



한석준
핑크팰리스/구성



김태성
핑크팰리스/객원스텝



Special thanks to
정차현실



김지수
핑크팰리스/구성



이혜원
핑크팰리스/객원스텝



김상훈
핑크팰리스/객원스텝



다큐멘터리 제작발표회 2005년 5월

그리운 달님은 어디에...

햇님아
햇님아
청량리에 가지꾸나

청량리에 가면
하룻밤 풋사랑
달님이 많다더라

이 세상에
천사표 달님은
가뭇에 콩나듯하구나

햇님아
햇님아
청량리에 가지꾸나

청량리에 가서
너의 햇살을 마음껏 주고
오자꾸나

햇님아
햇님아
청량리 그곳 아니면
너의 햇살을
받아 줄 달님이 없구나

그러나 햇님아
너의 예상이 빗나갔구나
내가 찌그러진 햇살이라며
받아 주지 않는구나

아 슬프다
귀하고 귀한 너의 햇살이
점점 빛을 잃어가는구나



바람과 나뭇잎

그대는 바람
나는 나뭇잎
나를 사랑하신다구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이 마음을 휘저어놓고
당신은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무정한 바람이기에 -

그대는 바람
나는 나뭇잎
나를 사랑하신다구요?
그러나 나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왜냐구요?
그대는 언제든지
이 가슴에 멍을 심어놓고
가 버릴지 모르는
얄미운 사랑이기에 -

그대 없이는 못살아요

나,
그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대는
나를 살리는
상큼한 공기방울이오

싱그럽게 감싸주는
그대는 내 작은
숲속이라네

나,
그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대는
이 몸을 따뜻히 덮어주는
사랑의 불꽃이오

갈증을 풀어주는
그대는 달콤한
생명수라네

그러기에
나에게
그대 없이는
못 살아요

꽃처럼
소주처럼
취하게 만드는 그대는
내 사랑이기에

봄 바람

사랑 사랑
노래 부르지요

봄이 온다고
사랑 사랑
노래 부르지요

사랑 사랑
꽃가에서
노래 부르지요

치마 폭이
사랑 사랑
노래 부르지요

사랑 사랑
넘 생각 난다고
노래 부르지요

봄이 온다고
사랑 사랑
노래 부르지요

사랑 사랑
노래 부르지요

봄 날

아지랭이가
하늘 하늘
피어 오르네

아지랭이 꽃바구니
이불삼아 귀여운
나비 한쌍이 존~다 네

어여쁜
꽃향기에 취해서
싱그러운 아가씨가
새근 새근 즐고 있다네

봄날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자동차가 춤 춘다네

그렇다면
봄날은 알미운
장난 꾸러기라 하겠네,

하늘나라에서 보내는 편지

아저씨!
저기 저~
은은한 종소리를
들어 보세요,

바람에 휘날리는
꽃물결처럼
아름다워요

그러나 또 한편
들어보세요,
저 ~ 아련히
들려주는 정겨운 멜로디는

한 소녀의 아름다운
노래랍니다

그러나 아저씨!
이 소녀가 보내드리는
어렴풋한 노래는

차라리 정다운
산들바람이 되어
아저씨의 귓전에 살며시
속삭여 주네요

아저씨!
이 소녀가 보내드리는
하얀 편지는
조각조각 함박눈 되어
아저씨 머리위에 살며시
보내 드리렵니다

하늘 저 ~ 멀리
그리움에 못 잊어하는
당신의 소녀라고 -

강아지 사랑

너와 나의 사랑은
살래 살래 꼬리치는
사랑이지요

너와 나의 사랑은
가슴 설레이게 어여쁜
사랑이네요

때로는 서로가
으르렁 할퀴고는
날마다 서로가 훑아주는
사랑이랍니다

너와 나의 사랑은
아름답고 청순한
강아지 사랑이래요

넘보지 말기

그대는
여자 봉사자,

나는
봉사 받는 장애인,

그래요 우린
그런 사이랍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고마운 사이!

이루어질 수 없는
눈물같은 사랑!

한쪽만
넘보지 말기!

불감증

뒷골목의 그녀가
사랑을 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복지관 앞마당에
십원짜리 동전 한잎이
떨어져있어도 누구하나
거들떠 보지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복지관 앞마당에서
2박3일간 웃고 떠들어도
건너편에 아파트에서는
내다보는 사람 하나 없어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네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도
인연일진데 금방 뜨거워지는데
1년 삼백육십오일 만나는 모임에서
누구하나 거들떠보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 않네

오형제중 장남이
장애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동생들 결혼식날 돌잔칫날에
초대받지 못해도 나는
나는 아무렇지 않네

활짝 핀 꽃에는 나비가 많고

이 세상은
한그루 꽃나무라네

한 가지에는
꽃들이 활짝활짝 피어나고

또, 한 가지에는
꽃들이 피다가 말았다네

나비들이여
어디로 가나이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네

하지만
나비들이여
저쪽에도 날아 가시옵소서

그대는 고속도로

나는 시원스럽게
쭈~욱 뻗은
고속도로이구요

그대는
외로움을 주지않는
자동차라네

그대여
나의 고속도로를
즐겁게 다녀가십시오

나는 그대를
환한 미소처럼 싱싱하게
맞아 들이렵니다

그대가
나의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려가실때마다

그대는 더 많은
생기와 환희를
가져갈 수 있기에
나는 행복합네다

중증장애인도 성(性)을 누릴 권리가 있다

장애인 性을 이야기하는 국내 최초의 장편 다큐멘터리



어떡요?
커미즈 걸렸어 얼른제 봐~



의 아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여태까지 여자하고 한 번도
데이트 해본 적이 없어..



충감뜰지 한 번 때 보는게 소원이었는데..



둘이 사랑을 나누는.. 귀엽다



크녕 이 사람과 사랑을 하고
싶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감각이 있고 없고 그 경계부담
그 경계부담을 잘 어루무시 해주세요



그러면 최동수씨는요 지금까지 살아
오시면서 섹스를 한 번도 못해보셨어요?



숯장각으로 죽으면 진짜 억울하데! 억울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안돼요 안돼요!



서동일 영화 '핑크팰리스' 감독



장애인의 性
2500 '핑크 팰리스'



29일날 얼큰 볼 수 있냐고?



www.pinkpalace.co.kr **핑크 팰리스**